"김밥 한줄에 희망을 담았어요"

부처를 닮은 사람들 의정부 재소자 위문

"봉사 스님·불자에게서 또다른 불교 모습"

◇'부처를 닮은 사람들'이 의정부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 막내랑 쏙 닮았네…."

파란 수의를 입은 재소자가 3살짜리 꼬마아이를 품에 안자, 두고 온 가족생각 때문인지 이내 눈가가 흥건해진다. 아이는 재소자 포교봉사 단체인 '부처를 닮은 사람들'(http://cafe.daum.net/ilovebuddha)과 함께하는 꼬마 포교사.

"여주교도소 여 재소자 방의 경우 아이들이 다녀가기만 하면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곤 해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가족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자책하는 마음 때문일 거예요."

12월 19일 의정부 교도소를 찾은 '부처를 닮은 사람들' 회원 7명과 의선 스님, 그리고 2명의 꼬마. 이들은 이제 교도소 철문을 드나드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용인 수지포교원 신도를 중심으로 재소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는 이들은 한달에 보름가량 교도소를 찾기 때문이다.

언제나 초과되는 질문시간을 마치며, 스님은 재소자들에게 교도소를 다시 찾을 때에는 교화시키는 입장으로만 오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가족들이 몇 개월 동안 찾아오지 않는 재소자도 많아요. 그 분들껜 저희가 만든 김밥 한 줄이 희망이 된다니, 아침마다 김밥을 싸면서도 힘든 줄 모르겠어요." 꼬마 포교사의 엄마인 전경란 씨 말이다.

"지난달인가, 다섯 살배기 딸아이를 백혈병으로 잃은 재소자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스님이랑 저희가 교도소 안에서 천도재를 지내줬어요. 아이의 아버지인 재소자와 천도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펑펑 울고…." 윤영국 씨는 아직도 가슴이 뭉클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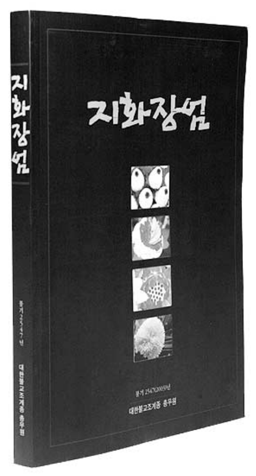
재소자 대표 정모 씨는 "이렇게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보면서, 생활 속에서 전파되는 또 다른 불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오유진 기자

불전장엄용 紙花 보고서
조계종, '지화장엄' 발간

생화에 밀려 자취를 감췄던 불전장엄용 지화(紙花)에 대한 조사보고서 <지화장엄>이 발간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이 조사보고서는 조계종이 2002년부터 불교무형문화재를 조사·발굴·전승하기 위해 진행해온 전통불교문화조사사업의 첫 결실이다.

<지화장엄>은 불교에서 전해지는 5가지 지화의 제작과정을 사진과 함께 단계별로 기록한 보고서로, 지화 제작 기능 전승과 지화 대중화에 기여할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불교 지화제작 기능을 전수받아 40여 년간 지화를 제작한 이기원 씨가 지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촬영, 정오 스님(포항 천국사 주지, 영산재 이수자)과 성운 스님이 정리했다.



이외에도 지화의 유래, 불교의식 속의 지화장엄 종류, 무속에서 보이는 지화와의 비교, 지화관련 논문 등이 포함돼 있다.

12월 23일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조계종 문화과장 심원 스님은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이 지화의 가치, 현황 파악의 결과라면 앞으로는 지화를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지화 장인을 무형문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두 번째 전통불교문화조사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찰학춤을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사형제 폐지 종교인 천도재 봉행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은 12월 25일 구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사람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종교인들이 촛불행렬을 하고 있는 모습. 남동우 기자

법천사지, 금동불상 등 유물 발굴

원주 법천사지에서 금동불상 1점(사진)과 기와류, 목재를 엮어 만든 방형의 우물지, 건물지 9동, 석탑 옥개석, 보살입상 등 신라 말기부터 조선전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강원도 문화재연구소 조사단(단장 지현병)은 12월 24일 법천사지 3차 발굴조사 결과 머리부분이 결실된 금동불입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불두와 불신, 대좌를 따로 제작해 접합시켰고, 대좌는 불신에 촉으로 고정했다. 대좌 등의 양식으로 보아 신라 전성기 보다는 후대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천성산과 운명 같이 하겠다"
지율스님, 법륜·수경 스님과 대응방안모색

도롱뇽소송, 16일 3차 심리

12월 26일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도롱뇽 소송의 2차 심리가 끝난 후 지율 스님은 "천성산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처음의 마음이 변함이 없으며 현장이 생기면 달려가 반드시 천성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북한산이 노선 강행 쪽으로 결정되면서 천성산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법륜 스님, 수경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제 111호 법정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정우규(울산생명의 숲 대표),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함세영(부산대 지질학과 교수) 등을 신청인으로 받아들이고, 1월 16일 오후 3시 3차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12월 15일 열린 천성산 현장검증에서 울산 고속철도공단측에서 지하수, 지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신청함에 따라 천성산 비대위측에서도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도롱뇽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도롱뇽의 소송대리인인 '도롱뇽의 친구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효 소송인단수는 18만8천7백명으로 자료 입력을 진행 중이다.

한편 지율 스님은 도롱뇽 소송인단 1백인 모집을 위해 1월 7일부터 전국투어를 열고 거리서명, 강연, 간담회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도롱뇽 소송에 관한 자료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생명 사랑의 마음을 담은 '원고, 도롱뇽 출석했습니까(가제)'라는 책도 1월 중순경 출판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도난성보회수·범인 검거
공로자 9명에 공로패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23일 도난성보문화재를 회수하고 범인을 검거한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공로자들에게 감사패와 금일봉을 전달하며 "5천년 인류 역사와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회수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공로자는 구례 천은사 범종을 회수한 전북 임실경찰서 백종진 서장, 배영근 경사, 김진담 경장과 영동 영국사 영산회상도를 회수한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강신태, 허정행, 김동하 씨, 서울지검 송인택 검사, 임순만 행정주사보, 김규상 검찰주사보 등 9명.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김진담경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배영근 경사는 "문화재 도난 사건을 수사할 인력이 부족해 사건해결이 쉽지 않지만, 신속한 신고로 도난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문화재 도난 사범 검거에 힘이 된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의왕시 자원봉사대회
청계사팀 단체 우수상

청계사자원봉사단(단장 김명순)이 12월 16일 의왕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03 의왕시 자원봉사대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자원봉사단체상을 수상했다.

지난 1981년 창립된 청계사자원봉사단은 그간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원봉사인증제 도입, 30여 복지시설 및 군·교도소 위문방문 등 모범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여왔다. 김철우 기자

42장경 특별강좌 개최
혜진법사 초청 7일부터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광주불교문화대학 강의실에서 위빠사나 명상센터 원장 혜진 법사를 초빙, 42장경에 관한 특별강좌를 무료로 진행한다.

42장경은 중국 한왕조(서기 62년경)때 명황제의 초대를 받고 중국을 방문한 인도스님들이 부처님과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만든 시편집형식의 경전이다. 광주불교교육원은 지난 94년에 개원, 불교교육과 문화교육, 불교문화 유적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062)228-9098

김은경 기자

2004 갑신년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호국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도선사

조 실 휴암 정천
부조실 경하 현성
회 주 진불장 혜성
주 지 선묵 혜자

청담문도회 일동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직원 일동
학교법인 청담학원 직원 일동
사부대중 일동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264 TEL 02)993-3161/3 FAX 02)993-3164
http://www.dosunsa.or.kr